문학 · 스토리텔링 등 연재 대중성 강화

현대불교신문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대폭 강화했다. 논설위원들을 새로 교체하고 불교학 · 사회실천분야를 강화했다. 문학 · 문화 · 역사 · 스토리텔링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신규연재들도 확대했다. 신년 신규 필진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임 논설위원들은


법장 스님


정운 스님


김형중


민정희

불교학·사회 분야 전문가 전문 오피니언 칼럼 강화

현대불교신문사가 2021년 신축년을 맞아 논설위원을 보강했다. 기존 필진 중 주경 스님 · 방영준 교수 · 석길암 교수 · 이화행 교수는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전문 필진을 모셨다.

법장 스님은 일본 하나조노 대학원에서 계율 전공으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교토 불교클럽 우수유학생상, 한국불교학회 학술진흥 최우수상, 일본 인도불교학회 학회상을 수상했다. 2018년부터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및 상주교수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운 스님은 1989년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 후 동국대 선학과에 입학,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지냈다. 2009년 동국대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전숲길(한권으로 읽는 경전)〉〈명상, 마음치유의 길〉〈경전의 힘〉〈인물로 보는 한국선사상사〉 등의 저서를 펴냈다.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한문교육을 전공했으며, 중국 연변대에서 〈휴정의 선시문학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국교법사단장, 동대부중 교감,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시교육청 교과서 심의위원, 동대부여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기후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이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 · 경제 · 사회정책위원 등을 맡고 있다.

문학

정찬주의 소설 '아쇼까대왕'



本紙에 '아쇼까대왕 유적기행'을 연재한 바 있는 정찬주 작가가 아쇼까왕의 흔적을 소설로 연재한다. 갠지즈강변의 신흥종교였던 불교를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 바깥으로 전하는 데 크나큰 업적을 남겼던, 불자들에겐 벅찬 이름이 아닐 수 없는 아쇼까왕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난다.

문화

김혜신의 'Cinema Mandara'



영화는 종합예술이다. 카메라 필름 · 조명 · 사운드 등 근대 과학 기술의 급진적 발달로 탄생한 표현 도구를 이용하여, 영화작가가 그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작된 수많은 영화 중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은 무엇일까. 김혜신 평론가가 전하는 불교영화 해설들.

김종미의 '차(茶)와 사람을 잇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중은 코로나 블루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과연 우리는 힘겨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좋은 차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철학으로 차와 사람을 이어온 김종미 교수가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차 생활'을 소개한다.

세계불교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미얀마 양곤대 오리엔탈학과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최재희 씨가 올해는 미얀마를 움직이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미얀마 국민들의 존경받는 스님과 불교적 가치를 토대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등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들의 삶과 불교 이야기를 소개한다.

문화재 · 역사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세계를 놀라게 한 고려불화! 그 진면목은 무엇인가. 해외에 현존 작품이 약 98% 소장되어,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고려불화의 비밀. 그 비밀은 기상천외한 세부 묘사에 있다. 중진 불교미술사학자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직접 발품을 팔아 약 7년 간 현지 촬영한, 생생한 세부 사진을 공개한다.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석보상절〉은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가 사망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한 부처님의 전기다. 유려한 문장 때문에 당시 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정작 〈석보상절〉에 담긴 의미를 살피지는 않았다. 〈석보상절〉 전문가 정진원 교수가 전하는 〈석보상절〉의 진면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교리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법화경〉은 〈반야경〉〈유마경〉〈화엄경〉과 함께 초기에 성립된 경전이다. 7권 28품으로 구성된 〈법화경〉은 모든 불교경전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수많은 민족들이 애호했던 대승경전이기도 하다.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역임한 반야불교연구원장 지안 스님이 〈법화경〉에 담긴 가르침을 독자 제호에게 전한다.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계율의 사전적 의미는 불자(佛者)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계는 깨끗하고 착한 습관을 익혀 지키기를 맹세하는 결의를 이르며, 율은 불교 교단의 규칙을 이른다. 불자라면 지켜야할 계율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불교학 박사 임상희 씨가 계율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전한다.

스토리텔링

박원자의 '母情佛心'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머니가 있었고, 우리가 아는 고승들도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어내는 모정(母情)은 자비(慈悲)며, 불심(佛心)이다. 박원자 작가는 스님들의 출가기 등을 취재해 엮어낸 전문 라이프 스토리텔러다. 이번에는 자신이 만난 선지식들의 어머니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담마끼띠 스님이 마하위하라사원 주지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단상을 전한다. 특히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문화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게재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호기심을 해소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 안에서'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모임 보리수아래 회원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코너다. 장애인불자들과 심리적으로 가장 밀접한 최명숙 대표가 불교와 문화로 세상과 소통하는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를 통해 장애불자들과 함께하는 도반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한다.

'싯다르타 시대 문화읽기'



부처님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연재다. 누구도 정확한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상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불자로서 바라보는 불교가 아니라 학자가 바라보는 불교를 소개한다.

선문화

김호귀의 '한국禪 톺아보기'



김호귀의 '한국선 톺아보기'는 도의국사로부터 시작된 한국선 1200년을 맞아, 구산선문부터 한국선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기획이다. 동국대 선학과를 나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로 재직중인 선 전문가 김호귀 교수의 글을 통해 한국 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여보자.

박희승의 '禪, 세상과 만나다'



박희승의 '禪 세상과 만나다'는 한국에 전래된 선문화의 현주소와 발전 상황,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연재다. 불교인재원 교수이자 선사상에 조예가 깊은 박희승 교수는 선 전래 1200주년을 맞아 지금 인류에게 선이 무엇인지, 선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문명사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의 지혜를 말한다.

수행 · 치유

유영일의 행복한 책읽기



유영일의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책읽기'는 〈지금 이순간을 살아라〉〈내안의 나〉와 같은 번역, 기획자로 활동한 필자의 소개로 영성의 시대, 뉴클래식으로 자리잡은 마음수행에 관련된 책들의 면모를 소개한다. 행복한 책읽기는 글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신문 속 새로운 여행이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산스크리트어 모체로 현재까지 전해진 문자로써 신성한 언어문자로 칭해지는 실담범자 진언 다라니주 등은 한글과 닮아 51자로 구성 돼 있다. 이러한 실담범자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여년 동안 연구 매진한 안산 법륜사 주지 법헌 스님은 범어실담자 최고 학자로서, 범어 사경을 대중화시키고자 헌신 중이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경 선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